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처우 개선 하라”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 “처우개선비 대신 기본급 올리고·인건비 가이드라인 제대로 갖춰야” 주장

전주시의회 서난이 의원은 9일 제336회 전주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분회의에서 시장질문을 통해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주먹구구식 편성 논란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실적인 처우개선비 지급 방안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적은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맞추려고 했다. 각 시설별로 내려진 처우개선비는 다시 시설 내에



서 직원별로 임의로 편성되어 나눠 갖게 됐다”면서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그 차액이 반납이 아닌 남은 직원들끼리 내부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처우개선비를 80만원 편성한 시설도 있어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처우개선비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 평가에서는 6시가 퇴근인 직원들에게 야간 운영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규정, 시간의 수당이 없는 시설은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한옥마을 내 민간위탁 시설 처우개선비 대신 기본급을 올리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의원은 “민선 6기 시장이 생애중심 도시, 사람중심 도시를 강조하는 반면 청년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며 “내년에도 청년일자리 정책은 기본계획 수립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청년일자리 확대 정책 방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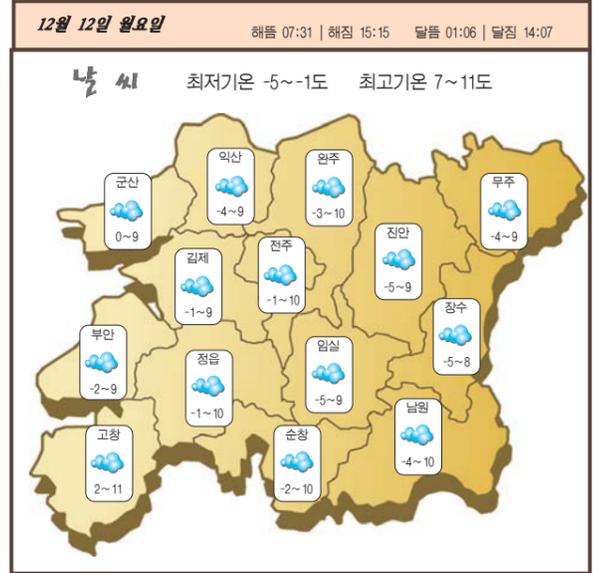
서 의원은 “지금까지 전주시 청년일자리 정책은 국비 또는 도비 매칭의 취업알선사업과 창업지원사업이 전부”라면서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나, 인건비를 보조하는 지원, 제조업분야의 창업 지원 등은 한계에 봉착한 만큼, 전주시는 전주시민의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청년일자리 정책의 구체

적 대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액과 행사사업보조 등 1회성 행사 경비로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해 ‘미래세대 기금’ 조성과 ‘청년희망카드’ 도입 운영을 제안했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한옥마을 민간위탁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연봉 2000만원 이하의 임금이 낮은 직원들의 급여를 전주시 생활임금 수준으로 보전해 주기 위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며 “처우개선비는 문화시설별로 조직구성과 인력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전주전통문화관을 비롯한 6개 문화시설 21명에 대하여 9800만원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서 의원이 제시한 ‘미래세대 기금’ 조성과 ‘청년희망카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재 기자



전북교육청 다문화 인식개선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포스터 최우수·교육수기 우수·교육자료 부문 장려상 수상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부 주최로 열린 ‘제8회 다문화 인식개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 교육수기 부문 우수상, 교육자료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세인고등학교 김현지 학생은 ‘다문화 화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부문 학생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전주우림초등학교 학부모 하이디 씨가 ‘낯선 나라에 어찌다 학부모’라는 사례로 교육수기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 부남초병설 유치원 장은홍 교사가 ‘온누리에 행복, 희망 새싹 기르기’라는 주제로 교육자료 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9일 일산 컨벤션에서 열린 ‘2016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되며 올해 공모전에는 다문화 인식개선 UCC 부문 7편, 다문화 인식개선 포스터 부문 8편,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자료 부문 11편, 다문화 실천사례 교육수기 부문 23편 등 49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올해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다문화 너나들이 축제에 전시하고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되며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학교에서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전주 만성초등학교



우수시설학교, 전주 흥산초등학교

전주 만성초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 수상

흥산초 교육부 주관 ‘우수시설학교’ 우수작 선정

전주만성초등학교가 국토교통부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전주 흥산초등학교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2016 우수시설학교’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9일 전북도교육청은 2014년 전주 혁신도시로 이전 신축·개교한 만성초등학교가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색에 필요한 다양한 맞춤형 공간을 창출한 설

계를 높이 평가해 ‘제10회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하1층, 지상4층 40학급 규모의 만성초등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관보다는 내실을 중시하고 학생의 안전이 고려된 친환경 건축, 에너지 효율이 높고 신재생 에너지가 적용된 건축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16 우수시설 학교’ 우수작으로 선정된 전주 흥산초등학교는 올해 3월 개교했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 설계에 주안점을 뒀다. 포켓공간 등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적인 놀이공간을 만들고, 교사용 중앙에 도서관을 배치해 방과후에도 머물 수 있는 개방형이 특징이며, 지열시스템과 태양광 등이 적용된 저탄소 녹색학교로 전기소비량도 낮았다. /정해은 기자

우수시설학교는 교육부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 부문 등에서 총 4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달 중 시상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설은 아이들이 성장하며 학습과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시설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학교폭력 피해자 이사비용 지원

1회에 한해 최대 2백만원까지

학교폭력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백만원까지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으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사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인정된 학교폭력 피해

자이며 학교폭력 발생 후 1년 이내 이사하고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통보서, 이전비 지원신청서, 이사비 영수증(견적서),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통장사본을 갖춰 관할 검찰(지)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전화 문의 후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http://www.wku.ac.kr/ 21세기 문화인재를 키우는 원광대학교

Wonkwang

WONKWANG UNIVERSITY

원광대학교	Search 🔍
원광대학교 프라임 관련학과 신입생 장학금 최대 160만원 지급	
원광대학교 국내 대학 최초 ISO 26000 이행 수준 최고 등급 획득	
원광대학교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우수 A등급	
원광대학교 서울 ↔ 익산 KTX 1시간대	
원광대학교 1학과 1기업 창업 지원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6. 12. 31(토) ~ 2017. 1. 4(수) ☎063-850-5262~4(입학관리과)